

環境人の 団合과 힘을!

—구속된 환경인을 구합시다—



朴昌根 <<社>環境教育會 위원장>

우 리俗談에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알아준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들을 보면, 부자 보다는 자신도 그리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 가난을 겪어본 사람들이 의외로 많음을 본다.

가난을 겪어 보지 못한 사람은 가난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래서 실감(?)이 나지 않아 돕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우스개가 있다. 어느 국민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집안이 가난한 사람은 손을 들어 보라고 하자, 모두들 서로 눈치만 볼뿐, 쑥스러운지 아무도 손을 들지 못하고 있는데, 의외로 그 반에서 뿐만 아니라 전교에서도 제일 부자집 딸로 통하는 학생이 번쩍 손을 들더라는 것이다.

선생님이 놀라서 왜 너의 집이 가난하냐고 묻자 학생은 거침 없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이다.

“네! 선생님. 우리집 운전 기사 아저씨는 집이 없어서 우리 집 차고에서 주무시고요, 정원사 아저씨는 돈이 없어서 그 아저씨 아들은 대학교엘 못가고요, 파출부 아주머니는 가난해서 밉크 코트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 집엔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집은 가난한 집입니다.”

가난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가난 타령이다. 하기가 해방 직후 쌀이 귀해 백성들이 강냉이 밥이다, 좁쌀 밥이다 하고 어렵게 식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이승만 대통령은 “왜들 밥만 먹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소고기와 빵으로 주식을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는 실정 어두운 말을 했었다는 일화도 있었으니.....

가난은 가난한 사람이 알고,
슬픔은 슬퍼본 사람이 알고,
어려움은 어려워본 사람만이 안다.

1. 지난 호(8월호),이 칼럼에서 구속된 환경 관리인 朴雲錫씨의 이야기를 쓰면서 필자는 環境人の 단합을 호소한 적이 있었다.

글이 나가자 전국에서 이에 호응하고 함께 걱정하는 전화와 글들이 달려왔다. 현재의 「환경보전법」에 쌍벌 규정으로 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대표자는 벌금 몇 푼으로 해결(?) 되고 관리인은 구속될 수 있는냐? 는 비판의 소리였다.

더구나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1만여 관리인은 어찌면 좋으냐고 발을 굴러왔다.

그리고 어려운 처지임에도 애써 돈을 송금해 왔다.

경기도 파주군에 있는 「성광 피혁」의 환경관리인 정승호씨가 5만원, 부산의 「신라교역(주)」 환경관리인 홍일봉씨가 5만원, 포항에 있는 대진공업(주) 이종의 관리인이 1만원, 대구 삼화정수처리(주) 김덕열 사장님이 5만원, 그리고 서울 「한국 과학기술원」의 환경관리인으로 있는 민성기씨가 직접 2만원을 들고 달려왔다.

“변호사비 2백만원의 1퍼센트 밖에 안되는 적은 돈이지만... 사식이라도 넣어 주십시오...”

돈을 내미는 민성기씨의 손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히 고여있었다. 이외에도 환경전문도서만을 출판하고 있는 녹원출판사 서영두 사장님이 변호사비에 보태라고 10만원을 보내왔다. 이 아름답고 뜨거운 환경인의 정으로 하여, 역시 「환경인은 외롭지 않았다」고 쓰는 것이다.

2.

구속된朴雲錫 환경관리인은 지난 7월 15일 구속되어 현재,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무더위 속에서 두달가까이 갇혀 있는 것이다. 朴雲錫씨와 함께 구속된 기업주(대표자) 2명은 지난 8월 초 금보석으로 풀려나왔는데...

말하자면 돈 있고, 후견인(?)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풀려 나는데 우리의 환경인 朴雲錫씨는 돈도, 후견인도 없어 갇혀 있다는 얘기다.

어제, 9월 3일 朴雲錫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몰라보리만큼 얼굴이 상한 朴雲錫씨가 교도관에 이끌려 법정에 섰다. 朴雲錫씨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주도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왔다.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기업주가 朴雲錫씨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렵쇼, 그 변호사는 朴雲錫씨를 위한 변호사가 아니라 기업주의 벌금 5백만원이 너무 많으니 D.C해 달라는 변호사가 아닌가?

그리고 한 술 더떠, 이번 사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환경관리인인 朴雲錫씨가 업무를 태

만히 해서 생긴 것이라고 진술하는 것이 아닌가? 자신은 기술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몰랐고 모든 일은 朴雲錫씨가 알아서 한 것이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기업주의 발뻘...

그때 까지도 기업주에 대한 의리와 고용인의 양심으로 애써 자신에게 책임이 있었다고 회사를, 기업주를 감싸오던 朴雲錫씨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리고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비애의 그림자가 朴雲錫씨의 얼굴 가득히 덮혔다. 그럴수 없는 배신, 어찌 기업주가 자신에게 과해진 벌금 5백만원이 비싸다고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자신을 위해 애써온 고용인을 건져 주려기는 커녕, 수령으로 떠밀어 놓다니...

분명히, 따져볼 일이다. 이번 사건은 어디까지나 기업주의 횡포에 의한 사건이지, 관리인의 잘못이 아니다.

그동안, 朴雲錫씨는 회사를 위해 아니 이나라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용량 자체가 부족한 시설에 그 시설 마저 노후했을뿐 아니라, 약품 수급도 원활하지 못해 몇번이나 기업주에게 알리고, 사정하고, 애원해 왔다.

이래서는 어렵다고 시설 개수를 해달라고, 약품이라도 제대로 맞춰 달라고...

끝내, 조치가 없어 朴雲錫씨는 지난 6월 20일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리고 7월 4일 검찰에서 폐수를 채취해 갔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과 朴雲錫씨와는 무관한 것이 된다. 그래서 판사가 기업주에게 6월 20일 사표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기업주는 사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봉급이 적어서 낸 제스처어로 알았다며, 朴雲錫씨가 사표를 제출하고도, 환경인의 양심으로 회사에 나온것을 책임의 소재로 몰아버리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힘 부족이었다. 변호사도 선임 못하고 혼자 외롭게 받는 재판! 결과는 구형 1년 6개월! 모두들 아연실색 했다. 적어도 기업주와 같이 벌금형으로 기대했는데 1년 6개월 구형이라니...

다음 공판은 9월 17일 예정이다.

전국 환경관리인연합회에서는 그동안 답지된 성금과 서둘러 돈을 꾸어다 우선 변호사 착수금을 만들어 변호사를 선임했다. 늦었지만, 더 이상 좋아지기를 기다릴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 기업주와 환경인의 싸움(?)은 시작된 것이다. 아니 오염자와 보호자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들리는 얘기로는 집행유예로 벌금이 선고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다.

즉, 3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중 벌금쪽을 믿는 것이다.

물론, 그 벌금은 마땅히 朴雲錫씨를 고용한 사장이 물어야 한다. 그게 원칙이며 도리다.

그러나, 혹시 나 몰라라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만의 하나 내가 물어 주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당장 돈이 없어서 내일, 내일 미루다가는...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약(폐수처리 약)사달라는 것 다 사주고(朴雲錫씨의 얘기는 틀리지만), 기계도 손 봐주고... 사업주로서는 할 일 다 해주었는데... 라는 판인데...

환경인이여!

朴雲錫씨의 벌금은 우리들 환경인의 손으로 해결하자! 차라리 그것이 떳떳하지 않겠는가?

우리들 환경인의 동생이며, 친구며, 형이며, 아들인 朴雲錫씨의 벌금은 까짓것 우리들 환경인의 마음으로 지불하자!

아니, 벌금은 사업주가 낸다면, 그동안 감옥에서 고생해 형편 없이 축이 났을 朴雲錫씨의 補身食代로 성금을 건자!

아니, 몸이야 얼마나 축이 났을까 싶으면 그 마음을... 환경을 지킨다는 그 마음을... 차마 사업주에 대한 의리상 어쩔수 없었던 그 여린 마음을 위로해 주는 위로금을 건자!

아니면 앞으로 더욱 열심히 환경을 지키는 환경인이 되어 달라는 격려의 뜻으로 격려금을 모으자!

그도 저도 아니면, 다만 환경인의 한 사람으로써 환경인을 위한 환경인의 뜻으로 환경금이 라도 좋다!

무엇인가 보여 주어야 한다!

환경인은 외롭지 않다는 것을...

환경인은 단결되어 있다는 것을...

환경인은 살아 있다는 것을...

이 절호의 기회에 무엇인가 보여 주어야 한다.

환경보전 사업가 여러분!

당신이 만든 시설물들, 당신이 제공한 약들, 당신이 권유한 기기를 쓴 朴雲錫씨입니다.

환경보전 교수님!

당신이 가르친 제자, 당신의 책으로 공부한 朴雲錫씨입니다.

환경보전 공무원 여러분!

당신이 지도한 환경인 당신이 지켜주어야 할 朴雲錫씨입니다.

환경보전 관리인 여러분!

당신의 동료이면 당신과 함께 이 나라의 환경을 지키던 朴雲錫씨입니다.

1백원도 좋고, 1천원도 좋고, 1만원도 좋습니다. 함께 동참한다는 그 뜻, 함께 걱정한다는 그 뜻, 함께 단 하나뿐인 우리의 조국을 지킨다는 그 뜻이 중요합니다.

朴雲錫씨를 위한 성금이 아니라, 우리들 환경인을 위한 승-을 보이자는 것입니다.

성금을 보내 주실 환경인께서는 다음 방법을 택해 주십시오.

※ 온라인

국민은행 : 804-01-0129-326

전국환경관리인 연합회

조흥은행 : 364-1-063834

전국환경관리인 연합회

우 체 국 : 011874-0006527 이용운

※ 소액환 등의 송금

서울시 구로구 구로 5동 2부락 9호(성보빌딩 203호)

전국환경관리인 연합회